

祝 辭

申 奎 植

한림의대교수
대한이비인후과학회장

이번에 耳鼻咽喉科 釜山·慶南支部에서 支部會誌 “임상이비인후과”를 發刊하게 되었다는 消息을 듣고 참으로 놀랍고 반갑기 한이 없습니다. 全國의 耳鼻咽喉科學會員과 더불어 진심으로 慶賀하여 마지 않습니다. 不過 몇해전까지만 해도 中央學會誌조차 그 定期發刊이 順調롭지 못함을 想起할 때 이것은 本支部의 과감하고 적극적인 努力에 의한 快舉임을 立證하며, 學界의 先驅者로서 學會를 이끌어 나갈 支部의 無限한 可能性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.

듣은바 本紙는 순수한 學術的知識의 交換뿐만 아니라, 教養 및 會員間의 消息을 傳하는 廣場으로서의 役割도 맡게 된다니 會員相互間의 親睦과 紐帶強化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은 論할 필요도 없습니다.

釜山·慶南耳鼻咽喉科의 처음 회동은 1956年 11月 겨울날 釜山大學校 醫科大學의 木造建物の 한 초라한 教室이 그 요람이었으며 參席人員 역시 손가락으로 헤아릴 수 있는 數로서 태초의 회합은 초라한 가운데 위대한 힘이 내재해 있었습니다. 초반기 어렵고 힘든 여러 與件을 團合된 努力과 智慧로 克服하면서 오늘의 35年史의 歷史와 傳統을 내세울 수 있는 자랑스런 支部會로 變貌되었고 이제는 可能性과 霸氣넘치는 意慾을 發揮할 수 있는 중요한 轉換期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.

現在 140여명의 會員을 주축으로 釜山·慶南의 醫療發展은 물론 나아가 全 人類의 醫療福祉를 위해 增進하고 있습니다.

이와같이 찬란한 歷史를 간직한 釜山·慶南支部에서 支部會誌의 發刊은 오히려 當然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으나 歷代支部長을 위시해서 全會員의 피땀나는 努力과 和合없이는 到底히 實現될 수 없는 課題임에 틀림없기에 再三 아낌없는 贊辭를 드리며 本紙의 無窮한 發展을 祝願합니다.